Rabigh2 프로젝트 저가입찰 경쟁

GS건설, 최저가격 제시하며 의향서 제출 ... 대림도 CP1 덤핑입찰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사우디의 홍해 연안 Rabigh 석유화학단지 2단계 공사 입찰에서 각각 최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수주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영국계 Petrofac과 함께 합작 발주자인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Saudi Aramco)와 일본 스미토모화학(Sumitomo Chemical)으로부터 5월 초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사우디 소식통이 5월6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람코의 칼리드 알 팔리흐 최고경영자는 2010년 Rabigh 확장공사 코스트가 60억~8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으나 입찰 관련 소식통은 경쟁이 치열해 공사비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미토모화학의 홍보책임자는 의향서 발송은 최종협상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2단계 공사 수주기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발주자와 GS건설 및 페트로팍의 협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최종 수주기업 결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사우디 소식통들은 협상이 5월 말께 열려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abigh 석유화학단지 2단계 공사는 원유에서 석유화학,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아람코 계획의 일환이다.

대림산업은 석유화학단지 2단계 공사의 CP1 패키지 생산시설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CP1 패키지는 큐멘(Cumene), 페놀(Phenol),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플랜트를 말한다.

아람코와 스미토모화학은 CP1 패키지의 입찰 유효기간을 6월2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7>